

Question! 청소년을 위한 가톨릭 성교육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Q. 몸의 신학

신부님! 가톨릭에서 행하는 성교육과 사회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성교육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가톨릭의 성교육은 성(性)을 신체적 관점만이 아니라 이성적·정서적·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도 다루잖아요. 그에 비해 일반 성교육은 너무 신체적인 면에만 치우쳐 있는 듯해요. 이 차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性)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달라서 생기는 거겠지요? 언제인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성의 본래 모습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가르침인 ‘몸의 신학’에 잘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목만 들어도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신부님! 이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A.

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치들도 소중하다는 의미이지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진정으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 인내, 헌신, 용서 등의 영적인 덕목들이 필요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이러한 영적인 가치들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1979년 9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수요 일반 알현’ 자리에서 신자들을 직접 만나 성(性)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 주셨지요. 이 가르침을 모은 것이 바로 ‘몸의 신학’입니다.

그러면, 몸의 신학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오직 몸만이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신적인 것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은 태초에 하느님 안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신비를 세상의 보이는 현실로 옮겨 놓도록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 표징이 됩니다.”(1980년 2월 20일에 하신 말씀) 교황님께서 우리 몸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신비가 보이는 표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성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性)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줍니다. 성(性)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하느님의 신비와 은총을 전달해 주는 성사입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대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창세 1, 27).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위한 선물이 되라는 성소를 받았지요. 이 혼인의 성소는 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몸”(창세 2, 24)이라는 하나됨 안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몸은 또한 ‘생식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통교를 통해 세상에 ‘세 번째 생명’을 가져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태초에 하느님께서 만드신 우리 몸은 당신의 신비를 전달해 주는 ‘태초의 성사’인 것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자녀에게로 전달이 되고, 그 은총은 혼인으로 이룬 가정을 통해서 온 세계로 전해집니다. 우리 몸과 성(性)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겠지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목적대로 우리가 서로의 몸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느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의 신학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인간’, ‘역사적 인간’, ‘종말론적 인간’이라는 세 가지 인간 유형에 대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면 “한 처음에”(마태 19, 8), 역사 안에(마태 5, 27-28), 그리고 종말 때에(마태 22, 30) 드러나는 우리 인간의 경험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인간’입니다. 이것은 바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성적인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性)은 사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몸을 통해서 순수하게 서로를 바라보았고, 친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하게 몸의 혼인적 의미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알몸이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창세 2, 25).

그런데 그들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죄로 인해 서로 간의 일치에 금이 가고, 은총과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은총의 상태에 있었던 ‘첫 번째 인간’이 이제는 마음속의 음욕과 싸워야 하는 ‘역사적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음욕은 하느님 사랑이 결여된 성적인 욕망입니다. 만약 우리가 음욕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마태 5, 28). 우리는 이제 음욕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몸의 혼인적 의미를 재발견하고 그것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性)의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때에는 우리가 더 이상 혼인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마태 22, 30)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늘 나라를 위한”(마태 19, 12) 독신자들은 지상에서 천상 혼인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늘 나라

는 몸에 대한 경험과 일치를 향한 갈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인간의 궁극적 갈망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의 “한 몸”의 일치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몸에서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다시 몸의 혼인적 의미를 재발견합니다.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 보는 만남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몸의 신학은 몸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신체를 통해 그분께서 계획하신 영적인 의미를 묵상하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성(性)을 통해서 진정한 하느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몸의 신학에 담긴 이러한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물음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성적인 행동과 결단이 하느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대구대교구 소속 사제. 신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2011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St. Mary Seminary and Graduate School of Theology를 졸업하고(석사)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 이후 수학을 계속하여 사목 신학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구대교구 4대리구에서 청년·청소년 사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틴스타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